

# 내 인생의 창조주는 바로 나

모시나 안 모시나 99.9%는 49일 만에 윤회전생을 해요.”

박은 어둡어둡해지고 묘허 스님으로부터 49재 전 과정을 소상하게 듣고 나니, 열라국에 불들려 와서 일곱 번의 재판을 낚낚이 다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스님은 흑시 전생에 열라국에서 대장노릇하다가 오신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이것은 내가 지어낸 한 말이 아니라 <지장경> <시왕경(十王經)> 등 경전에 다 나오는 이야기”라면서 활짝 웃으셨다. 문득 ‘열기들이 스님의 법문만 듣고 갈 것이 아니라 환하게 웃는 스님의 얼굴도 보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자라면 인과법을 철저히 믿어야 해요. 선악의 원인은 우리가 일으키는 한 생각에 있습니다.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 이것이 선악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죄가 되는 순간이요, 착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복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예 이 생각 자체를 끊어 버리면 죄도 없고 복도 없습니다. 이것이 말처럼 간단하지 않아요. 수행을 해야지요.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업을 짓는 것이기에 일생동안 우리가 지은 업은 끝이 없어요. 신구의 3업을 통해서 한번 짓고 저질러 놓은 업은 백겁 천겁 만겁이 지나가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시절인연이 도래하면 자기 스스로가 다 돌려받게 됩니다.”

돌려받을 때에는 선업은 선보(善報)를 받게 되는데,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불러 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단다. 반대로 악업은 악보(惡報)를 받게 되어 있는데, 나쁜 일을 지어 놓았으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는 없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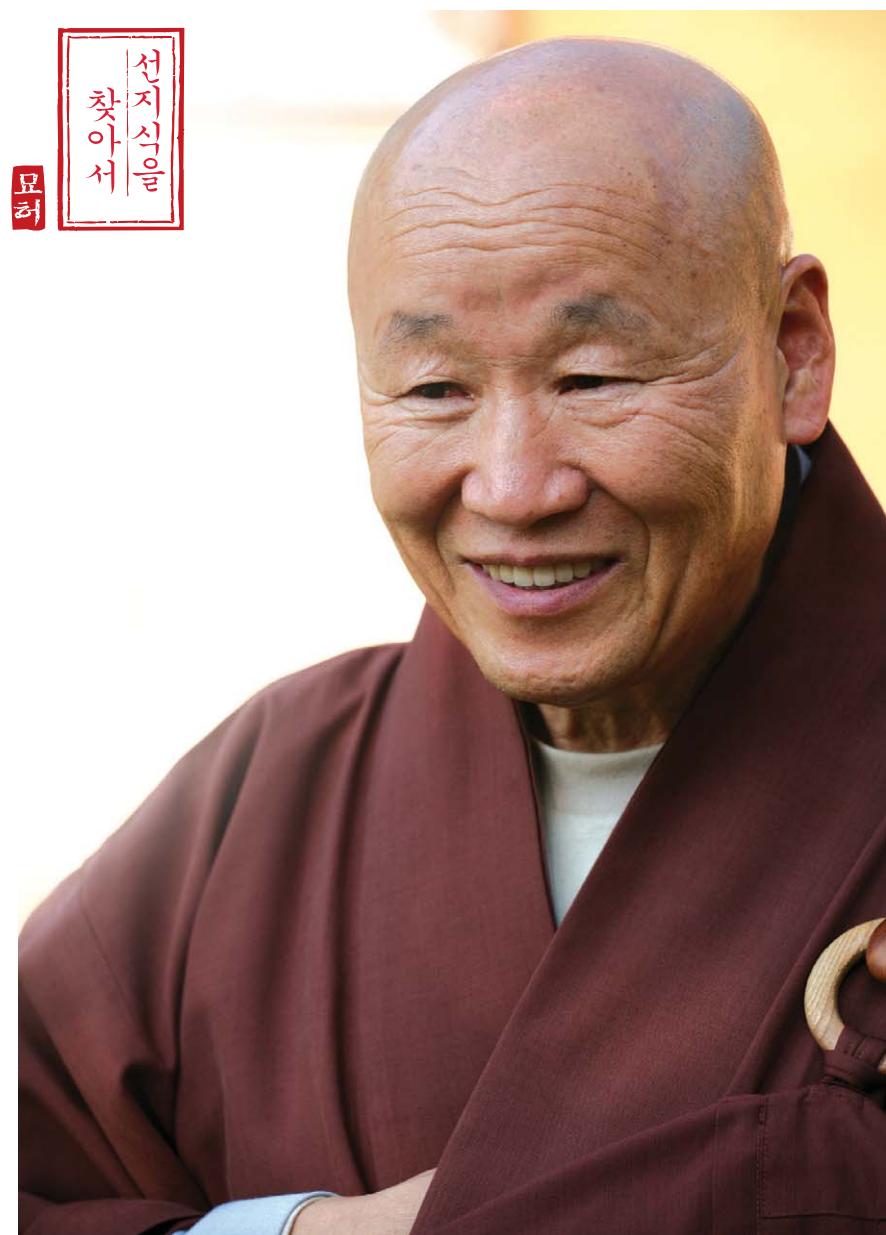
묘허 스님의 인과법문을 듣고 난 후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 하나가 ‘어떤 사람은 남에게 해만 끼치는 못된 사람인데도 지금은 굉장히 부자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남에게 나눠주기 좋아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데도 가난하게 사는데 왜 그런지를 묻는 것’이다.

“악한 사람이 지금 잘 사는 것은, 잠시 동안이나 그 사람의 전생 선업의 열매가 이어지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현재 선업을 짓지 않는다면 악업의 열매가 익었을 때 그 사람의 복덕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요. 반대로 선한 자가 현재 못사는 것도 지난 업의 결과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업은 아직 익지 않은 실익은 업이지만 전생에 지어놓은 공덕으로, 지금은 비록 악한 자라도 잘 살고 있는 것이지, 좋은 업을 짓다보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분명히 오는 것이 분명하니 좋은 일 하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과법만 확실히 믿는다면 상대가 나에게 잘못해도 상대의 잘못하는 그 모습이 전생의 ‘내 모습’이라 여기게 되고 ‘내가 예전에 너에게 주었던 것을 오늘 내 가까이 와서 나에게 돌려주는구나’하고 생각하게 된단다. 그러면 입장소멸 잘 하고 빛 갠게 해주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선지식을 찾아서

묘허



생각을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 스님은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인과 법문이 되어 버린다”고 했더니 곧 불교TV 방송에서 ‘인과 법문’을 하게 된다면서 웃으셨다.

“此身不向今生度(차신불향금생도)하면 再等何時度此身(재등하시도차신)이라. 금생에 사람 몸 받아 불법을 만났을 때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해서 생사윤회를 해탈해야지, 어느 생애 또 다시 사람 몸 받을지를 기약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금생에 사람 몸 받았을 적에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하는 것이 불교임을 알아야 해요.”

방곡사에서 30분 정도 올라가면 ‘무문관’ 공사가 한창이다. 내년 동안기에 맞추어 개원할 예정인데, 방곡사 무문관은 좀 특별하다. 각각 독립된 수행 공간으로 방갈로를 연상케 하는 11채의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다 많은 수좌들이 정진할 수 있도록 방부를 들이면 두 번의

안거와 한 번의 산철 정진을 하게끔 무문관의 방부기간을 9개월로 한정할 예정이다. ‘각자의 수행 공간을 마련한 것은 아무래도 배이 붙어 있으면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수좌들이 다른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화두 참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무문관 스님들을 의외하며 정진하는 수좌들을 위해 일반 선원도 같이 개원할 것이라 하니, 무문관에 대한 묘허 스님의 애정과 기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좋은 법문을 들려주시고도 뭔가 미진하신지 “한 생각으로 지은 업이 오늘의 내 인생을 만들어왔기에 오늘 내 인생의 창조주는 바로 ‘나’입니다”라는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겨주었다. 산그늘이 깊은 만큼 방곡사에는 아들이 빠르게 밀려들었다. 사위는 불빛 하나 없이 철쭉 같이 어둡고 하늘엔 어스름 달빛만이 가득하다.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 禪

### <16> 해강 대선사

1984년 7월 필자는 부산 대승사 영산재에 초청되어 저녁 법문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저녁 8시부터 시작된 의식은 새벽 4시가 되어도 끝날 기미가 없었다.

“자재지성여단엄(自在熾盛與端嚴) 명칭길상준급자(名稱吉祥及尊貴) 여시육덕개원만(如是六德皆圓滿) 응당총호박가범(應當總號薄伽梵)…”

‘공·상·각·치·우·도·아니고, ‘도·레·미·파·솔·라·시·도도야고하늘 끝까지 땅끝 물속까지 들어가 그시·말(始)을 잡을 수 없는 반파소라·..’

징하는 향공양, 반야지혜를 상징하는 등공양, 목마른 자에게 감로의 법문을 들려주는 다공양, 보리의 깨달음을 얻게 하는 과일공양, 인과의 결실을 상징한 쌀공양, 그리고 처엄상정(處染常淨: 더러운 곳에 있어도 항상 깨끗함)의 불성에 복덕을 나누어 준 꽃공양에 대하여 설명했다.

그러자 스님은 “정정명다약(淸淨莫名茶藥) 능제병훈침(能除病昏)

“22세 때 경명 스님께 배웠습니다. 범부·범패·작법 일시불로 배워 통영 옹화사에 있다가 경주 기림사, 울릉도 대원사에서 목을 단련하고, 거제 장수암에서 처음으로 법배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산에는 언제 내려 오셨습니까?”

“1960년 범천동에 본원사를 창건하고, 부산 영산재 나비춤 보유자로 인정받아 무형문화재 제9호로 활동하면서부터입니다.”

“나비춤이야 말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에 추는 춤이므로 중생이 부처가 되는 과정을 비유한 것입니다. 불



부산시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시연 모습.

## 13세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처님 찬탄하는 노래·춤 1960년 부산 영산재 나비춤으로 무형문화재 제9호로 활동

그런데 그 소리는 일찍이 전라도에서 들었던 소리도 아니고, 서울에서 들었던 소리도 아니었다. 나는 밤새도록 눈을 붙이지 못하고 옆방에 앉아 듣고 있다가 급기야 재장(齋場)으로 뛰어 들어 갔다.

흰질한 키에 평범한 얼굴을 가진 어른이 하얀 장삼에 청·황·홍 3색 가사를 입고, 탐 모자를 쓰고, 연꽃 두 송이를 들고 춤을 추는데 백 영이 넘는 법당이 팍팍다.

“향공양 연향공양 불신자비 수 차공양·..”

이렇게 등공양·향공양·꽃공양·과일공양·다공양·쌀공양을 순서적으로 외우면서 육법공양을 올리는데, 1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마당 가운데 앉아 쥐죽은 듯 소리가 없었다.

나는 거기에서 5분 법신을 상

沈 유기옹호중(唯冀擁護衆) 원수 애납수(願受哀納受)하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소리를 또 하였다.

아침 6시, 날이 훤히 밝아지면 서 재는 끝났다. 밤새도록 잠 한 습 자지 않고 불전 놓고 절하고, 불전 놓고 절하던 신도들이 마지막 반야선을 타고 저 언덕에 이르러 가듯 뿔뿔 나는 기분으로 모두가 헤어졌다.

큰스님께 예배드리고 물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무슨 소리요. 일음연창(一音演唱)인데, 내 이름은 해강이요.

1919년 고성 원평리에서 태어나 열세 살에 안장사 등을 켜려 갔다가 월암 스님에게 중이 되어 지금 내 나이 80이 되도록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소리는 누구에게서 배우셨습니까?”

교의 목적이 성불작조(成佛作祖) 부처와 조사가 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비춤은 성불 작조해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는 과정을 춤으로 엮어 삭막한 세상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불국토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 진실로 거룩한 춤입니다. 어찌 일인일기(一人一技)에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 중에 송택·송정·인택 등 삼형제가 있는데, 불법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러하여 세 아들이 동방불교 대학에 입학하고, 이어서 아버지의 기능을 전수받아 무형문화재 후계자가 되었다. 언젠가 이들 4 부자는 부산 구덕체육관에서 북치고 징치고 피리 불며 불무(佛舞)와 법음(法音)을 울려 온 세계가 부처님세상으로 변하는 것을 만민에게 보여주었다.

불교계 최초로 개발한 차세대 인터넷 신개념의 온라인 종무행정 수비라

신도 등록, 템플스테이, 수련회 예약관리, 접수, 재무 회계, 통계, 분석, 자동집계 기능등 종무행정 업무에 필요한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수비라 초기화면 · 신도등록집수 · 재무회계통계 · 접수별통계

종무행정 보상관매 실시

- 시스템 및 사용자의 제한 없음
- 데이터 이전 가능(별도 문의)

108사찰 한정 특가 250만원 ○ 130만원 (현비별도)

신도간 생활향 커뮤니티기능을 강화한 사찰 홈페이지 구축

사찰의 환경에 맞는 쉽고 편리한 기능제공

- 생활향 커뮤니티 지대방
- 카페, 블로그 솔루션 무상구축
- 내마음의 법당(인터넷 보시기능)무상제공
- 보안 인증 기술
- One-stop 관리자 환경 등

송광사, 용주사, 봉선사, 부석사 등 전국사찰 50여개 홈페이지 구축 및 서비스제공

문의전화 031)965-6629, 031)965-8253 경기 고양시 화정동 967-1 한솔빌딩 1007호 불교커뮤니티포털(불교마을) www.templevill.com / 탑스컴 www.topscom.net

희담석 의담석 www.jawonet.com

생명에너지의 방사력과 투과력이 탁월한 희담석 의담석, 온열매트 출시!!!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과 투과력이며, 제올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매트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백피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희담석 온열매트(세탁가능)

제품구성: 희담석 매트, 온도조절기 + 열판 (전자파가 거의 없는 무지개열선 사용)

내 용 물: 희담석 60% + 제올라이트(Zeolite) 40%

제품크기: ① 100cm x 50cm (사천) 가격 250,000원 ② 170cm x 60cm 가격 550,000원

정신집중이 잘되는 희담석 방석

품질효과가 탁월한 희담석 찜질팩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 염주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자원넷 JAWONET CO. 서울 서초구 서촌동 179-48 규곡빌딩 01038 TEL:023478-2335 FAX:023478-2565